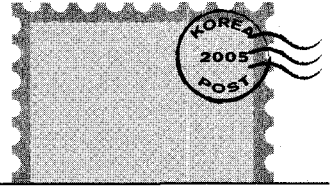


## 한농연 중앙연합회 소식



### 1월 24일, 한농 연중 앙연합회 임원진 이·취임식 개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12대 임원진이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서정의 한농연 12대 회장은 24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이·취임식'을 갖고 제2기 임기를 시작했다. 서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의식 있는 농업경영인의 발굴·육성 △내부 조직혁신을 통한 역량 강화 △급변하는 농업여건에 대처하는 정부의 농업정책 수립 촉구 △세분화된 농민조직의 역량 규합 △근본적 협동조합 개혁안

수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12대 한농연 중앙임원은 △서정의 회장과 △이홍세 부회장 △김기철 부회장 △박노욱 부회장 △조평희 감사 △문시병 감사 △왕남식 감사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농연 지사·지국 임원들과 가족을 비롯한 이명수 농림부 차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 2월 1일 열린 1차 이사회에서 신명운 부회장을 추가 선출했다.



좌로부터 서정의 회장, 김기철 부회장, 이홍세 부회장, 박노욱 부회장, 조평희 감사, 왕남식 감사, 문시병 감사.

## 을유년 설날, '우리농업 희망찾기, 농민대동제'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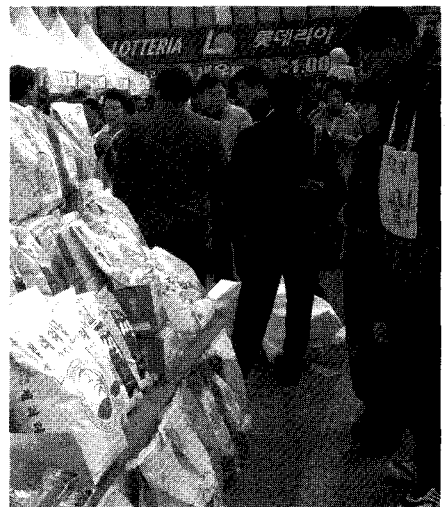
지난 7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하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등 주요 농민단체들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청량리역 광장에서 농업계의 단합과 화합을 다짐하는 '우리농업 희망찾기, 농민대동제'를 가졌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과 농민단체 대표, 농민 등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쌀맛나는 세상'이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대동제는 우리 쌀의 환경·문화·역사적인 의미를 널리 알리고 쌀을 활용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참가 농업인들과 시민들이 힘을 합쳐 한술밥을 지어 먹는 '2000인분 대형 가마솥 밥짓기'와 '쌀장사 뽑기대회', 우리 쌀을 이용한 세계각국의 다양한 음식을 만드는 '이색 쌀요리 대축제', 전국 팔도의 기능성 쌀 전시 및 시연행사 등도 동시에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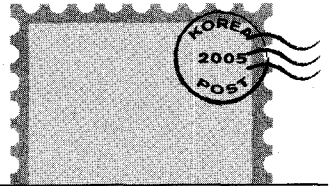
이 외에도 전국에서 모인 농업인들이 함께 새끼줄을 단심에 엮어 하나의 조형물을 완성하는 '단심줄 엮기'와 '기지시줄다리기', '강강수월래' 등 전통놀이가 벌어졌다.

이 행사에 초청된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농업인들의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부가 우리농업 희망 찾기에 앞장서겠다"고 하면서, "농업인들도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농업회생에 같이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이날 행사는 농민단체들이 주도하여 농업계의 단합과 화합을 기하고 농업인과 국민이 함께 상생하는 미래 우리농업의 희망을 찾는 장으로 열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 산하연합회 소식



### 충북도 연합회, 2005년 한농연·한여농 충북 농업지도자교육 실시



한농연충북도연합회(회장 송인범)는 지난 2월 17~18일 충주시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400백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2005년 한농연·한여농 충북 농업지도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우리 농업의 현실과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 중앙대 윤석원 교수의 특강과 “충북도정 주요사업”에 대해

충북도청 관계자의 설명, “한농연 농업정책 방향과 조직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한농연 중앙연합회 탁명구 사무총장의 설명, 교양강좌로 “고려수지침과 체질”을 주제로 고려수지학회 이영숙 지회장의 특강, “소비자 의식구조의 변화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의 필요성”을 주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이원재 과장의 강연 등 4개의 주요 특강을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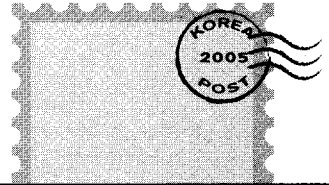
“우리 농업의 현실과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특강에서 윤 교수는 “OECD 선진국들은 2000~2001년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해 총 농업생산의 46%에 달하는 2300억달러를 썼는데, 이중 37%는 직접 보조금 형태로, 나머지 63%는 외국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로 부과돼 국산품 가격을 낮게 유지했다. 이로 인해 개도국들의 농산품은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며 “국가가 농민들 더욱 어렵게 만들고 벼랑 끝으로 내모는게 아닌가”라며 성토했다.

이어 윤 교수는 “모든 문제를 공론화시키지 않고 자꾸 감추려는게 우리 정부의 문제”라며 정부가 모든 협상에 앞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한농연 농업정책 방향과 조직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한 한농연 중앙연합회 탁명구

사무총장은 “어려운 농업이지만 희망이 있고, 우리 조직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며 “우리 농업의 대안은 한농연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간다면 충분히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 그 밖의 농업계 소식



### 북녘 못자리용 비닐보내기 운동본부 발족



지난 3일 한농연을 비롯한 국내 6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에서 ‘북녘 못자리용 비닐보내기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과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남북교류에 앞장서온 통일운동단체를 비롯해 62개 단체가 참여한 ‘북녘 못자리용

비닐 보내기 운동본부’는 올 3월까지 북한에 농업용 비닐 300t(약 1만1천롤)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현재 북한이 필요로 하는 못자리용 비닐은 폭 2m 짜리 3만km(45억원 상당)로 비닐이 충분히 지원되면 1정보 당 벼는 4t, 옥수수는 6.3t을 수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비닐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벼는 2.5t, 옥수수는 4.1t이 많은 양이다.

한농연의 탁명구 사무총장은 “FTA 확산과 쌀협상 등으로 우리 농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을 돕는 것이 앞으로의 남북 농업교류에 있어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이달 말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측과 실무접촉을 가질 계획이다.